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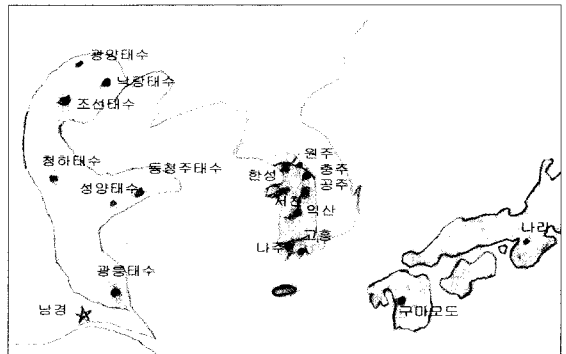


오순제 | 한국고대사연구소 소장
(osj6680@hanmail.net)

남한강변 중원지역의 삼국시대 유적

1. 남한강과 중원지방

한강은 한반도의 허리띠로 이곳을 점령하는 자가 역사의 패권을 장악하였다. 이 강은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나누어지며 북한강의 춘천지역은 말갈이라고도 불리우던 맥국이 자리를 잡았는데 말갈이란 '물길'이라는 뜻으로 물가에 사는 종족을 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한강변은 삼한시대에 마한의 땅이었으나 마한이 직산지역으로 후퇴한 후에 백제가 하남과 서울의 강남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남한강의 수운을 장악하게 되었다. 건국 초기에는 중랑천변인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의 하북위례성에 자리를 잡아 의정부와 포천지역에서 공격해오는 낙랑국과 맥국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였으나 온조왕이 부아악인 북한산 백운대에 올라가 강남을 시찰하고 현재 하남시 고골지역에 하남위례성과 한산성인 남한산성을 만들고 그곳으로 백성들을 옮긴 후 고이왕 때에는 중국의 위나라 유주자사 관구검이 고구려를 공격하자 그 허점을 노려 진충장군으로 수군을 이끌고 요서지역을 공격해 차지하였으며 일본을 쳐서 점령하고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나아가 근초고왕 때에 이르러서는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해 광개토대왕의 할아버지인 고국원왕을 죽이고 일본과 중국의 동해안을 점령한 삼국 중에 가장 강력한 해양강국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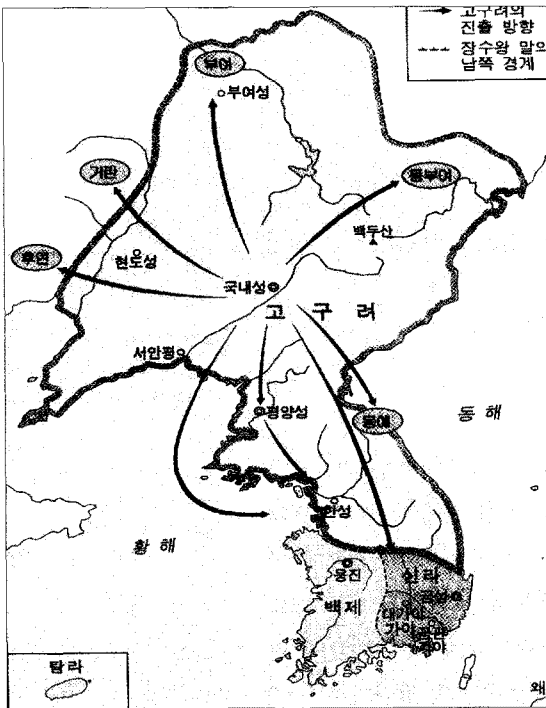
〈그림 1〉 백제 전성시기의 판도

그 후 장수왕의 공격으로 백제의 한성이 함락 당하고 개로왕이 끌려가 아차산성에서 죽임을 당하자 그 아들인 문주왕은 공주로 천도하면서 백제는 옛 영화를 잃어버렸으며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된 고구려는 강국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사국 중에서 가야에게도 압력을 받을 정도로 약했던 신라는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아 금관가야와 왜의 공격을 물리쳤으며 광개토대왕이 금관가야가 자리 잡고 있었던 김해지역을 초토화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구려의 압제 하에 있었으나 내물왕 이후 고구려의 지배에서 독립하면서 진흥왕 때에 이르러서는 가야제국들을 점령하여 국력을 증강시키는 동시에 고조선 때부터 내려온 보이스카웃과 같이 청소년 민간단체였던 화랑을 국가에서 지원

해 지도자를 양성하여 복진을 거둬들이고 백제의 성왕과 나제 동맹을 맺어 고구려를 쳐서 죽령을 넘어 강원도 함경도지역까지 진출하여 단양의 적성비, 함경도에 마운령비와 황초령비를 세웠으며 백제가 차지한 한강유역을 공격하여 빼앗아 북한산 순수비를 세웠다.

진흥왕은 후기가야의 맹주였던 고령지역의 대가야를 치기 위하여 창녕의 비화가가야를 점령하여 창녕순수비를 세우고 그곳에 하주(下州)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고구려를 치기 위하여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현재의 상주(尙州)지역에 상주(上州)를 설치하였다. 신라의 북진경로에는 두 개의 루트가 있는데 경주에서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안동을 거쳐 소백산맥의 죽령을 넘어 단양에 도착한 후 남한강 물줄기를 타고 서울 지역으로 진출하던 길이 있는데 이곳에 남아있는 유적들이 온달산성, 단양적성비 등이다.



(그림 2) 고구려의 전성시기

2. 삼국시대 중원지역의 유적

2.1 백제시대의 중원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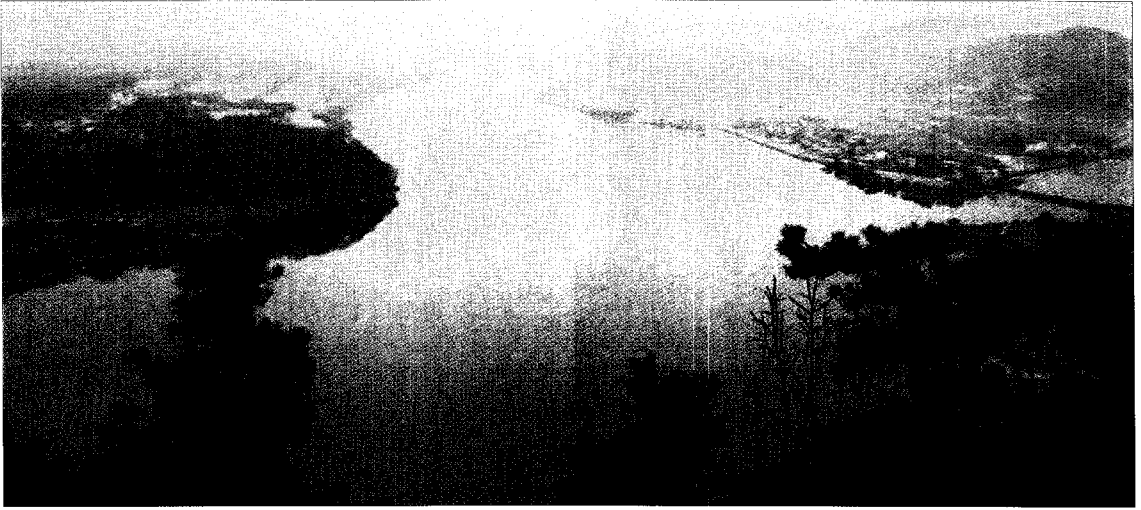
(1) 장미산성

장미산성은 중원군 가금면 장천리와 하구암리 경계에 있는 해발 337.5m의 장미산에 축조된 산성이다. 이곳의 남동쪽은 남한강(南漢江)이 흐르며 절벽을 이루고 있고 북쪽은 봉황리, 가흥리 등 넓은 평야지대가 연결되어 있으며, 서쪽은 을궁산과 연결된 안부에 탐평리에서 봉황리로 연결되는 잣고개에 있다. 잣고개 부근을 조사해 보니 이곳을 차단하기 위해 만든 옹로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 성은 잣고개를 통해 음성으로 통하는 길목을 지키는 요새인 동시에 이성을 휘돌아 나가는 남한강을 오가는 선박들을 감시하는 곳이다.

이 성의 전체 길이는 2,609m로 남북이 긴 장방형으로 문지는 4개이다. 토기류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골고루 수습되는데 특히 이곳에서 나오는 토기 중 새발자국문토기는 4~5세기경 백제의 한성시대에 축조된 청주 신봉동고분군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된 바 있다.

2004년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는 장미산성의 북서쪽 성벽과 봉화사 앞의 동북쪽 성벽 구간에 대하여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장미산성은 협축과 내탁의 축조방법을 혼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성벽 외측면의 기단부에서는 암반층을 그레이질하여 쌓아 올리고 있었으며, 성돌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턱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벽 내측으로는 장형 또는 장방형의 석곽이 노출되었는데,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석환이 비치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장미산성의 북서쪽과 동북쪽의 붕괴된 사면 안쪽으로 2~16단의 성벽이 비교적 잘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북쪽의 원탑이 있는 회절부에서 북쪽으로는 단을 이루고 있는 능선이 이어져 있는데, 이곳에서는 목책열이 노출되어 목책으로 된 치성을 마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책열은 풍화 암반층에 지름 95cm 내외, 주간거리 185cm의 간격으로 2열의 목책열이 11m 정도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목책으로 마련한 치성의 내부에서는 건물지로 추정되는 유구가 노출되었고 황갈색 연질토기편 등 다양한 유물이 확인되었다.

장미산성에서는 배수로가 성벽 안쪽에 배치되어 있는데,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린 빗물이 직접 성벽에 닿지 않도록 함으



〈그림 3〉 장미산성에 내려다 본 남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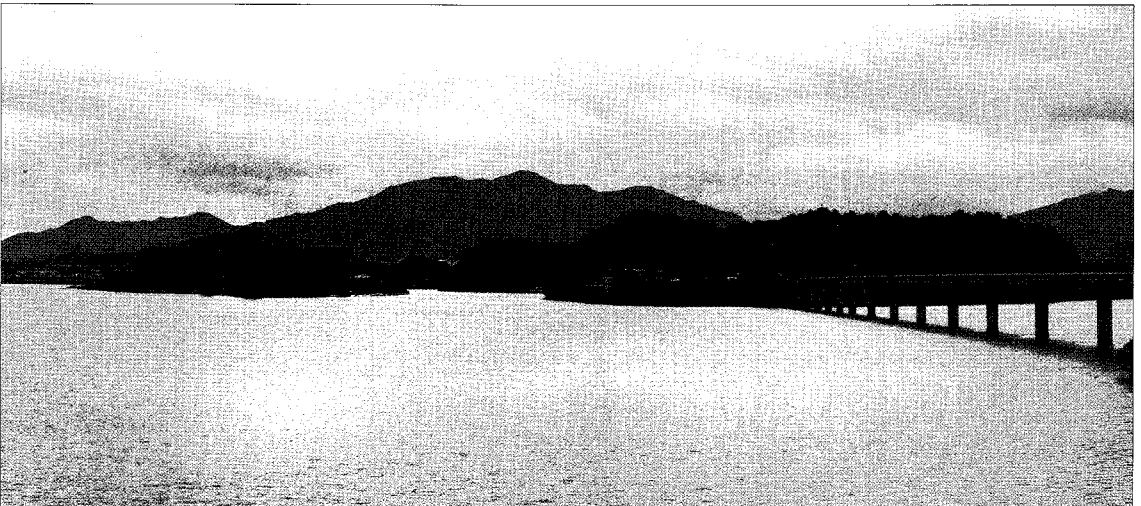
로써 성벽을 보호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장미산성 1차 발굴조사에서는 원통형토기를 비롯한 토기병 등 다수의 토기편과 화살촉 등 철제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또한 기와편도 일부 출토되었다. 이곳에서 백제 한성기에 해당하는 유물이 다량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이미 이 시기에 어떤 형태로든 백제 최대의 남방 경영의 기지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석축 성벽은 처음 축조된 이후 일부 구간이 수축되어 활용되었으며, 성벽 회절부 모서리에서 목책으로 만든 치성이 노출되어 주목되고 있다.

더구나 부근에는 중원고구려비와 신라의 중앙탑이 남아 있어 고구려와 신라시대에도 이곳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백제는 한성시기(漢城時期)에 죽령과 계립령을 넘어 단양이나 청풍에서 남한강 수로나 육로를 통해 북진해오는 신라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 성을 구축하였고 그 후 고구려와 신라가 사용하였던 것이다.

(2) 탄금대토성

남한강과 달천이 만나는 물목에 자리 잡은 탄금대토성은 견문산(犬文山) 또는 대문산(大門山)이라고 불리우는 야산 위에 남아 있는 토성이다. 탄금대(彈琴臺)란 가야시대에 진흥왕이 이곳에 오자 우륵이 가야금을 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을 맞아 배수진을 쳤던 신립장군



〈그림 4〉 남한강과 달천의 합수머리에 있는 탄금대토성

이 전사당한 곳으로 유명하다.

이 토성은 탄금대 동북쪽에 있으며 토성의 규모는 동서로 150m, 남북으로 100m 정도, 전체 둘레는 약 400m이다. 토성 내에서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를 비롯하여 삼국시대의 토기가 나오는데 특히 승석문이나 격자문이 타날된 회백색연질의 백제토기가 대부분이어서 백제시대 당시에 축조된 성으로 추정된다. 탄금대토성은 남한강과 달천으로 들어가는 물목을 지키는 동시에 소백산 쪽을 넘어오는 적과 장미산성 쪽에서 넘어오는 적을 막고자 하였다. 특히 이 성의 바로 앞에는 용성이 있는데 적이 잠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을 구축한 것이다.

백제는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교하라는 곳에 오두산성,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도는 양수리에 마현토성, 중랑천과 한강이 만나는 곳인 두무포에 응봉토성을 배치하고, 한강의 본류와 탄천이 만나는 곳에는 삼성토성, 한강의 본류와 성내천이 만나는 곳에 몽촌토성, 한강과 왕숙천이 만나는 곳에 수석리토성, 사미천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에 육계토성, 임진강과 장진천이 만나는 곳에 은대리토성, 한탄강과 영평천이 만나는 곳에 대전리산성 등을 배치하였다.

이곳 탄금토성 또한 이들과 같이 남한강과 달천이라는 중요한 두 개의 수로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 백제, 신라 등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국원성

고구려의 장수왕은 평양을 수도로 삼고 백제의 한성을 쳐서 한강유역을 장악한 후 소백산맥을 넘어 포항 부근의 흥해까지 남진을 하게 되었다. 이당시 고구려는 북쪽의 국내성과 같은 기능의 “국원성(國原城)”을 최남단인 충주지역에 설치 운영하였는데 이것은 충주가 고구려 남진 정책의 매우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국원성이란 충주의 고대도시로 오순제, 한중섭의 공동조사에 의해 계명산과 남산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마지막재(해발 260m)를 가로 막아 최후 방어선을 구축하였던 약 720m의 석축 흔적이 남아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고개는 삼국시대부

터 충주에서 남한강을 통하여 청풍, 단양, 죽령을 넘나들거나 송계, 미륵리, 하늘재를 넘어 영남으로 통하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이곳을 지키기 위해 계명산(775m)과 남산(663m)에 성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그 아래 약목에 거대한 토루를 가로 막아 마지막재를 통과하여 쳐내려오는 적을 막고자 하였다. 약목 바로 아래 주유소의 위쪽에도 또 하나의 토축으로 가로 막아 이중의 거대한 토루를 구축한 튼튼한 방어시설을 구축하였다. 약목이란 원래 양쪽을 막았다는 의미의 ‘양목’이 변한 말로 추정된다.

그리고 대부분 어림(御林)이라는 곳은 대궐터 또는 행궁지로 비정되고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서는 안림리 어림동에 초석과 와편들이 산재해 있다고 하였다. 현재까지 어림을 그 당시의 중심지로 보았으나 이곳은 그 앞으로 개울이 흐르고 개울 건너는 개활지로 방어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곳의 동쪽과 북쪽에는 토축부가 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이곳에서 안심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다 보면 산으로부터 흘러내린 토축이 절개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안심(安心)’은 그 말 그대로 피난처의 역할을 하였던 곳으로 보이며 계명산으로부터 흘러내린 두 개의 토축부가 하나는 ‘어림’과 ‘안심’이 사이를 가로지르며 충주 시가지의 LG아파트 쪽으로 내려가고 있고, 다른 하나는 북쪽을 호위하면서 만리치 쪽으로 흘러가 현재 유원 하나아파트 쪽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현재 고갯마루의 절개지를 보면 강돌이 산 위에서 나오고 있어 토축부를 성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곳에서 계명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온 토축부가 도로를 지나 유원아파트 바로 직적에서 솟아올라 장대지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다. 유원아파트를 지나 도로에서 절개된 후 다시 흘러가 남으로 꺾어져 만리산 쪽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충일중학교 쪽으로 이어져 냇물 앞에서 절개가 되어있다. 현재 충일중학교 북쪽 바로 담 뒤에는 솟아올라 있는 평단지가 조성되어있어 장대지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100여m 정도의 토축부가 남아 있고 이곳에서 삼국시대의 유물들이 수습되었다.

남한강이 중앙탐을 지나 북으로 흐르면서 다시 S자 휘어져

서쪽으로 꺾이는 지점에 장미산성과 하담리 보루를 구축하여 제천과 장호원 쪽에서 들어오는 적을 막고 있다. 이 도시 구조 중 가장 취약한 이곳에 장군소(將軍所), 중군소(中軍所) 등을 설치하여 육로와 수로를 방어하였다. 이곳의 남쪽 외곽에는 용관동산성과 대림산성이 있어 달천 쪽과 남산과의 사이에 있는 벌치 쪽을 방어하고 있다. 그 남쪽에는 소백산맥이 흐르고 있어 자연방벽을 형성하고 있다.

동쪽은 동약성, 동막 보루와 멀리 황석리산성, 대덕산성과 비봉산 보루, 망월산성 등이 배치되어 있어 남한강 상류 쪽에서 남진하는 고구려와 죽령을 넘어 내려오는 신라의 세력을 막고자 하였다. 특히 동약성은 살미면 문화리 광산이 있던 강변 쪽으로 돌출된 50m의 산으로 강 건너로 동량면 화암리, 포탄리와 마주하고 있어 제천과 청풍 쪽에서 진입하는 적을 꼭 막아 주어야 하는 곳이다. 이곳은 마지막재로 진입하는 적의 도강을 막을 수 있는 곳이다. 강 건너의 재오개리의 동막 보루는 발타재로 진입하고자 하는 적을 초입에서 방어하기 위한 시설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방어적 개념보다는 치소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약간 넓은 지대를 사용하기 위하여 협소한

안심이쪽보다는 현재 충주 시내의 성내 동쪽의 평탄지에 읍성을 구축해 사용하고 있으며 충주의 옛 이름인 예성(藥城)은 ‘옛성’이라는 말이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구려가 이 지역에 국원경(國原京)을 만든 것은 이러한 도시기반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며 신라의 중원경(中原京)도 이러한 전통을 이은 것이다. 즉 국원성이라는 명칭은 한성 백제시기에 이미 사용하였던 명칭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남산성은 백제의 구이신왕(久爾辛王) 때에 축성하여 당시에 국원성(國原城)이라고 불리워 오다가 신라 진흥왕 때에 범장성(范長城)으로 고쳤다고 한다. 『조선사략』에는 백제 개로왕 21년에 이 산성을 쌓아 적을 막았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마고선녀가 7일만에 쌓았기에 마고성(麻姑城) 또는 한미산성(漢美山城)이라고도 하기 때문이다. 마고성, 할미산성, 대모산성 등의 명칭들은 대부분 삼국시대의 성이므로 이것 또한 삼국시대에 축성된 것이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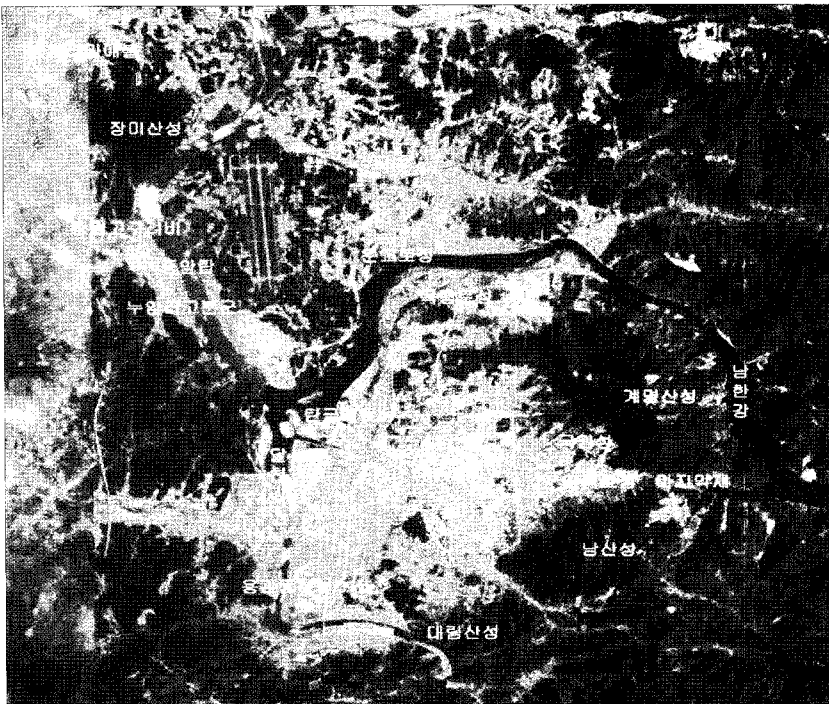
여기서 국원(國原)이란 ‘나라가 들어설만한 들’이라는 의미였던 것으로 보이며 백제가 이곳을 병합하기 전에 소국의 왕도였던 곳으로 이곳을 다스렸던 우두머리는 공주 수촌리 도시유적과 함께 담로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부왕(副王)의 위치

였다고 본다. 즉 이곳은 남한강이 ㄷ형태로 휘감고 돌아나가는 곳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 계명산성과 남산성에 오르면 남한강의 물굽이를 조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이다.

2.2 고구려시대의 중원문화

(1) 중원고구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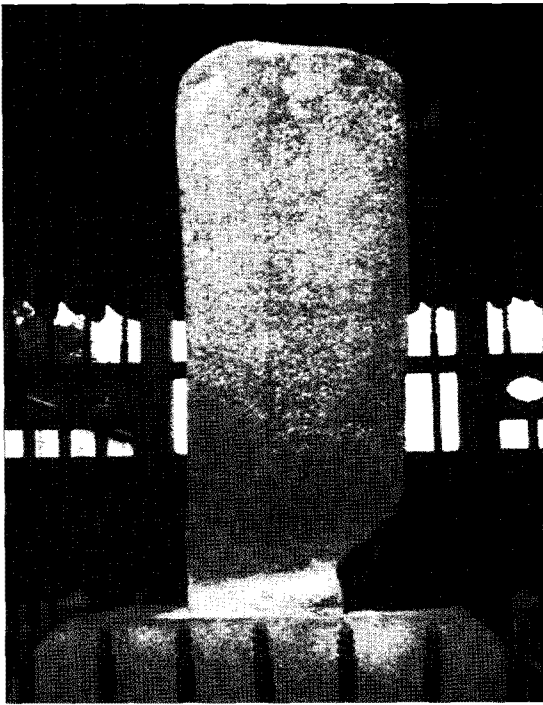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후 한강유역의 백제를 쳐서 개로왕을 죽이고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소백산맥을 넘어 흥해지역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그들이 남진기지로 삼은 국원경에 세운



(그림 5) 남한강과 충주지역 유적 및 국원성(구글어스)

중원고구려비의 형태는 광개토태왕비와 같이 자연석을 이용하여 사면을 다듬어 비문을 새겼는데 그 글체는 광개토태왕비문과 같은 예서체이다.

비문은 앞면과 왼쪽 측면 일부만이 판독이 가능하며 특히 맨 앞줄에 새겨져 있는 '고려대왕(高麗大王)'이란 명문에서 고려란 고구려를 가리키는 말이며 '전부대사자, 제위, 하부, 사자' 등 고구려의 벼슬이름과 광개토태왕비문에서 보이는 '고모루상' 등이 있고, 특히 '신라토내'란 명문이 두 곳에 있어 이는 신라가 아닌 다른 나라인 고구려가 신라 쪽을 가리키고 있어 이비가 고구려비임을 확실히 해주고 있다.



(그림 6) 중원고구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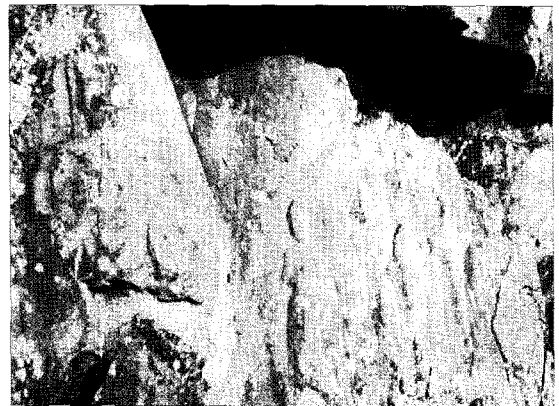
4면 석비인 이 비의 자, 행에 있어서는 앞면이 10행 23자씩이고 왼쪽 측면이 7행 23자씩이며 오른쪽 측면은 6행이 분명하지만 뒷면은 너비로 보아 9행 정도로 추측되고 있다. 이 비석을 세운 연대는 고구려 최성기인 5세기경으로 추정되는데 단양의 적성비에 의하면 6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야 신라가 고구려 영역을 빼앗을 수 있었고 비문에 보이는 '개로'는 백제의 개로왕을 말하며 '신유년'은 백제의 개로왕을 쳐서 죽인 장수왕 69년(481)으로 보아 고구려의 장수왕이 세웠음을 알 수 있다.

이 비석은 남한의 유일한 고구려비이며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차지한 역사적 사실을 증명해 주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기념비이나 비문의 판독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여서 주후 계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 비가 자리 잡은 곳은 남한강변에 자리 잡은 곳으로 남한강 수로를 통제하기 위한 고구려의 노력의 산물로도 볼 수 있다.

(2) 봉황리 마애불

충주시 가금면 봉황리 하천변의 헛골산 중턱에 마래여래조상, 미륵반가사유상 등이 양각되어 있다. 특히 미륵반가사유상은 삼국시대에 매우 유행한 보살상으로 미륵이란 미래에 나타날 부처를 말하며 반기는 한쪽 다리만 올림 모양으로 부처님과 같이 양쪽 다리를 올린 형상을 결가부좌라 한다. 사유상이란 생각하는 것으로 그는 미래에 혼탁한 말법시대에 이르러 나타나 중생들을 구원할 부처로 어떻게 할까 생각중인 것이다. 마치 지옥문 앞에 서있는 로맹의 '생각하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그 옆에는 6구의 보살상이 연꽃덩굴로 표현된 좌대에 서 있는 모습이고 서쪽에는 시무외·여원인을 한 여래좌상과 무릎 꿇고 앉은 공양상이 조각되어 있다. 위쪽의 마애여래좌상은 단독상으로 소라머리를 한 나발과 머리의 뒤가 튀어나와 있는 육계가 있으며 얼굴은 네모난 형태로 머리 주위로는 작은 부처들인 화불이 5구가 양각되어 있다. 이 마애불은 고구려적인 요소가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7) 고구려적 요소가 강한 봉황리 마애불

2.3 신라시대의 중원문화

(1) 남산성

충주시 안림동, 직동, 목벌동 등에 걸쳐 있으며 남산의 정상 부를 감싸고 있는 돌로 쌓은 퇴폐산성으로 남산성 또는 금봉산성으로 불리워지며 삼국시대에 축성된 것이다. 성 둘레는 1,145m이며 성벽의 높이는 7~8m에 이르고 있다. 성안에는 우물터가 2곳 있으며 동쪽과 서쪽의 산능선부에 문터가 남아 있고 동쪽에는 물이 빠지는 수구가 있다. 또 성안에서는 삼국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편 및 기와편이 발견되고 있다.

이 성에 오르면 청풍 쪽의 남한강 수로가 한눈에 조망되는 위치로 상류로부터 이곳을 통해 오가는 배들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2) 탑평리 7층석탑(중앙탑)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대동강과 원산만에 이르는 평만을 차지하고 그 북쪽에는 발해가 건국된 남북국시대에 그들의 중앙에 해당하는 남한강변에 거대한 7층탑을 건설하였는데 일명 중앙탑이라고 부른다. 이 탑은 현재 남아있는 신라석탑으로는 가장 높은 것으로 통일신라시대에 나타나는 2층 기단과 여러 개의 돌을 조립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림 8) 중앙탑

각 지붕돌의 받침들은 모두 5단으로 되어있어 신라양식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각층의 지붕돌들에는 다 낙수홈이 파여져 있다. 맨 꼭대기의 상륜부는 찰주라는 쇠조형기를 끼는 노반을 이층으

로 포개어 쌓았고 그 위에 얹어진 연꽃모양의 복발과 위로 향한 연꽃잎 모양의 양화판이 남아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높이에 비하여 너비의 비례가 적어서 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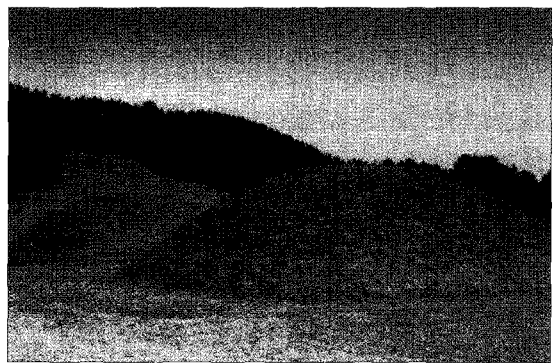
치게 높은 느낌을 준다. 1917년의 보수 때에 제6층 옥신과 기단 밑에서 사리장치가 발견되었는데 제6층 옥신에서는 경감 2매, 칠합 1개, 은제사리병과 그 안에 들어있던 유리제사리병 하나 씩이 발견되었다. 기단에서는 청동제 유개합 하나가 발견되었다. 그 중 경감은 고려경으로 창건 이후 2차적인 사리납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탑은 남한강변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어 이곳을 오가는 배들이 이곳에 내려 참배를 하고 갔을 것으로 보인다.

(3) 누암리 고분군

충주시 가금면 누암리에 있는 고분군으로 신라 말기에 조성된 이 고분군은 신라 진흥왕이 충주지방까지 그 영역을 확대한 후 중원소경을 설치하고자 귀족들을 이주시켜 한강유역을 경영하고자 하였던 사실을 증명하는 유적으로서 이 부근의 하구암리 일대에도 존재하여 누암리 일대에만 230여기의 고분이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서 발굴된 26기의 고분 중에서 횡혈식석실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횡구식석곽분이 2기, 수혈식 석곽묘 3기 등이 확인되었다. 횡혈식 석실분의 평면은 네모로 판을 놓았던 자리인 관대가 만들어져있고 석실 통로인 널길은 중앙이나 한쪽에 치우쳐서 설치되었고 흙을 쌓은 봉분 주위에는 호석을 둘렀다.



(그림 9) 누암리 고분군

이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짧은굽다리접시, 바리, 합, 향아리 등의 신라후기양식의 토기류와 쇠손칼, 덩이쇠 등의 철기와 청동제허리띠장식, 금동제귀고리 등의 장신구류와 옷

을 만들기 위해 실을 뽑던 가락바퀴 등의 토제품 등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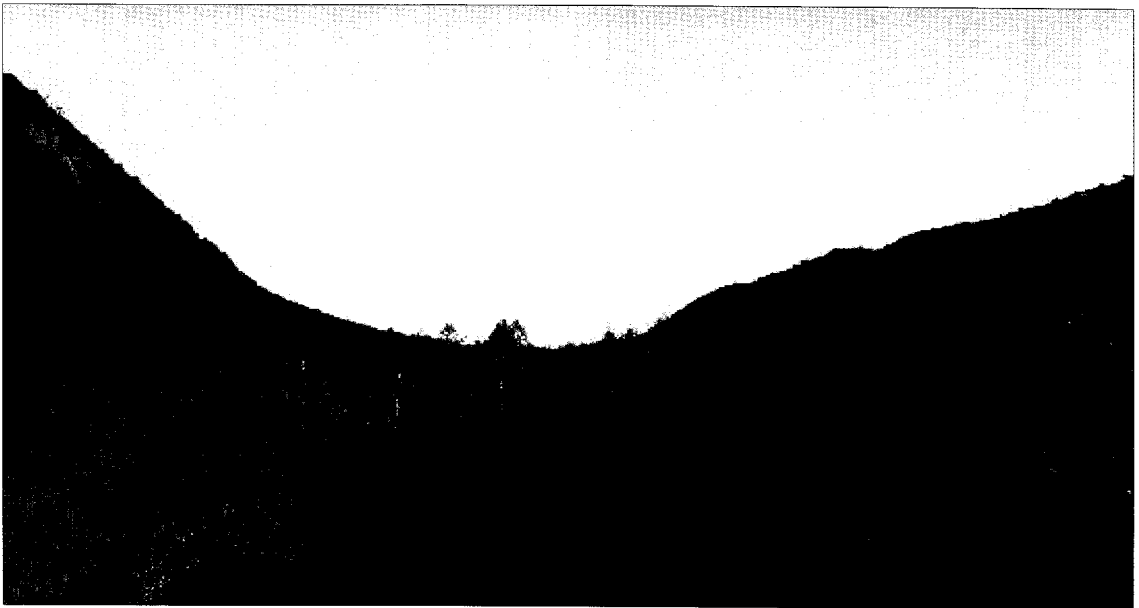
이곳은 국원성의 서쪽에 자리 잡은 곳으로 남한강변 중앙탑 바로 옆의 산기슭으로 서방극락정토를 갈망하는 신라인들이 묻힌 곳이다.

(4) 탄금대

신라의 진흥왕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한강유역을 차지한 후 이곳을 들렀다. 이당시 대가야가 신라에게 멸망당한 후 이곳에 와서 있었던 가야의 유민 우륵이 가야의 악기인 가야금을 진흥왕 앞에서 연주를 하였다고 하여 탄금대(彈琴臺)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곳은 백제시대의 토성이 있는 곳으로 남한강과 달천이 만나는 곳을 지키던 요충지로 양쪽의 수로를 통제하는 중요한 곳이다.

(5) 계립령 차단성

계립령은 신라가 남한강을 거슬러 올라와 상주에서 문경을 거쳐 소백산맥을 넘었던 고개로 현재 이곳은 '하늘재'로 불린다. 이곳은 포암산과 탄항산 사이에 있는 해발 525m의 하늘재는 충북 충주시 상모면 미륵리와 경북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를 잇는 길로 신라 제8대 아달라(阿達羅)왕 3년(156년)에 북진을 위해 길을 뚫었다고 한다. 죽령보다 수년 먼저 개통된 계립령은 그 고개를 넘으면 남한강의 수운을 이용해 한강 하류까지 갈 수 있었던 요충지로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가 이 고개를 넘어 영남지역으로 남진을 하지 못하게 그 고개를 가로 막는 차단성을 쌓았다. ●



〈그림 10〉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 계립령이라는 통로로 쓰인 하늘재